

‘전력대란’ 중국 석탄 비축분도 바닥

주요 발전소 재고량 15일 버텨 내년 2월까지 최대 19% 부족 호주산 수입 금지 이후 수급난

중국이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이 향후 2주 버틸 정도만 남아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는 시노링크증권의 분석을 인용, 이달 21일 현재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1,131만톤에 불과하며 이는 겨우 15일 버틸 정도라고 전했다.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날짜에서 이미 8일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발전소는 비수기에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사

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시노링크는 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은 발전용 석탄 18억5,000만톤이 필요하지만, 2억2,200만~3억4,4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의 12~19%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SCMP는 “매년 9월이 되면 중국 발전소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석탄 재고량 보충에 나서지만, 올해는 석탄이 매우 귀해 겨우 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매체는 이달 중순 현재 중국 31개 성 중 최소 20개 성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통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가 하면, 주요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의 석탄 재고량과 소비량 간 격차

확대는 지난 4월 이후 확대되고 있다.

그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공급 제한과 수요 증가 속에 석탄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해 톤당 670위안(약 12만원)에서 최근 약 1,100위안(약 2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석탄가격 급등에 수익성이 약화한 중국 발전소들은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려하지 않았다고 시노링크증권은 설명했다.

올해 1~8월 중국의 전력 생산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났지만, 석탄 생산은 4.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30억 톤 이상인데, 그중 수입량은 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해 10월 무역 분쟁 중인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석탄 수급 상황은 악화됐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 석탄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품질이 좋고 열효율과 가성비가 높다.

그러나 중국이 호주산을 대체해 수입량을 늘린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은 품질이 낮고 열효율이 떨어져 향후 중국의 전력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난화선물은 전날 보고서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이후 고품질 석탄 3,500만 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석탄의 70%가 열효율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산”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중국이 석탄 생산을 줄이고, 과잉 채굴의 결과로 광산의 수가 줄어든 것이 현재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 석탄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내이멍구 지역 부패 사정작업 역시 석탄 생산에 타격을 가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내이멍구 석탄 산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년 전 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올보르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옌스 호닝의 ‘돈을 갖고 튀어라’ /EPA-연합뉴스

작품명 ‘돈을 갖고 튀어라’

“형편 없는 작가비에 영감” 덴마크 예술가 호닝 고발 미술관, 제작비 반환 요구

한 덴마크 저명 예술가가 형편없는 작가비를 고발한다며 제작비를 포함해 1억 원 넘는 돈을 미술관에서 지원받고도 백지상태의 작품을 출품했다. 29일 영국 언론 가디언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Aalborg) 현대미술관에서 ‘워크아웃 아웃’(Work it Out)이라는 주제 아래 최근 개막한 전시회에 예술가 옌스 호닝(56)은 텅 빈 화폭 2점을 선보여 미술관 측에 당혹감을 안겼다.

미술관 측은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호닝에게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평균 소득을 다룬 그의 과거 작품들을 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닝의 원작에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지폐들이 부착됐기에 미술관 측은 작가에게 작품 제작에 필요한 돈 53만4,000 크로네(약 9,970만원)와 작가비 2만5,000 크로네(약 47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권력과 불평등에 천착해 온 작가인 호닝이 전시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전달한 작품은 미술관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백지상태의 작품 2점을 미술관 측에 건네며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제목의 새로운 개념예술품을 창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미술관의 라세 안데르센 관장은 “호닝은 본질적으로 우리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작품을 창조했다”며 그가 흥미로운 작품을 내놓았음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대로 전시회가 끝나 내년 1월 이후에 제작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인 28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여성들이 ‘임신 초기 낙태 허용’에 관한 법안 통과를 반기며 녹색기를 앞세우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칠레 하원은 이날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75표 대 반대 6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AFP-연합뉴스

칠레, 낙태 허용 향한 첫발 ‘14주 내 비범죄화’ 하원 통과

남미 칠레가 임신 초기 낙태 허용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칠레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75표 대 반대 6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 한 후 상원으로 넘어간다.

임신 초기 선택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2018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뒤 최근에서야 의회 논의가 시작됐다.

첫 관문을 넘긴 했으나 정부와 중도우파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은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이기도 했다.

칠레를 비롯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곳곳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내달 4일 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64·사진) 전 외무상이 내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를 27대 총재로 선출했다. 두·개표는 공영방송 NHK로 중계됐다.

기시다는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170표)을 87표 차이로 눌렀다.

그는 이달 30일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잇는 자민당 당수로 취임하며 내달 4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기시다는 이날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2위인 고노를 1표차이로 앞섰으나 유효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다. 이어 1·2위 후보로 압축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기시다의 당선 이 확정됐다. 고노는 당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했으나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이나 이번에 아베의 양속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공조한 것 때문에 자민당 주요 노장파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가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쭈쭈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블랙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척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척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복빌딩